

두 명의 농민이 시위과정에서 사망한 지난해 11월의 여의도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1월 7일에는 전·의경의 부모와 전역자들이 평화로운 시위문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더 이상은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회성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성숙된 민주사회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존권이 직결된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행동을 보이는 시위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의 권위주의시절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가 이룩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사표현의 통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폭력시위의 방법을 고수하는 일부 시위대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만일 집회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무리하게 강경진압에 나설 이유가 없다.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전·의경의 사정도 안타깝게 그치지 않다. 전·의경의 부모들은 갈바닥 한 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불자 세상보기

곽 대 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위문화 코드는 '평화'

가슴이 아리고 방송화면을 통해 그들이 시위대에 게 매를 맞는 장면을 바라보면 자식 격정에 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온몸이 떨린다. 그들이 거리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데에는 이 땅의 아들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의경들이 강경진압의 명을 쓰고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반발심과 절망감이 있다. 미국에서는 평화로운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플리시타인을 침범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0일에 25년 만에 뉴욕 대중교통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어

떤 폭력도 없이 평화적 시위를 고수한 채 파업을 마쳤다. 프랑스에서는 시위대원은 총포류와 같은 무기는 물론이고, 화염병과 같은 인명살상 가능성이 있는 흉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은 직업경찰관 가운데 별도로 선발해 훈련시킨 폭력시위 진압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일단 진압 작전에 들어가면 철저히 체포한다. 우리 사회도 외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질서유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담당하고, 경찰과 평화로운 행사진행에 대한 '신

시협정'을 맺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경찰은 폭력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에는 시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이 투철한 전문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시위발생의 원인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자신들을 대신해 전·의경들이 거리에서 시위대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규정>의 한 구절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를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뒷세대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비와 포용의 불교정신과 비폭력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불자들은 결코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2006년 새해에는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펼쳐 버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시위대의 안타까운 죽음도 전·의경 부모들의 서러운 눈물도 필요치 않는 평화로운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성숙한 시위문화가 참으로 절실하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대구지역 초중고 불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 모임을 결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교육현장의 수장인 불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이처럼 뜻을 모은 것은 단순한 친선모임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그들을 정토건설의 보현행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뜻으로 보여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타종교의 청소년 선교전략은 전담차원에 비견될 정도로 결사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수많은 연예인들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마저 틈만 나면 기독교인임을 공공연히 자랑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의지는 아직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대구 교장 교감들의 큰 서원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비해 그 활동이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지금처럼 스스로 찾아오는 중년이상의 부녀자층에 자족해서는 불교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단 구성원들의 위기의식과 순교적인 각오 없이는 이 땅의 불교미래는 희망을 걸기 어려운 것 또한 눈물겨운 현실인 것이다.

단순한 모임결성이나 법문을 들려주는 차원으로는 학생 청소년들을 부처님 품으로 모으는데 할 수는 없다.

종단은 물론 지역사찰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와 시대적 기호에 밀접한 교재연구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인터넷 세대인 청소년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며 자질과 꿈을 키워주어야만 학생 청소년 포교는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대구지역의 불자 교장 교감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서원한만큼 교육현장에서부터 포교의 새 기운이 싹트기 바란다.

■ 도수(영남대) 학부

이렇게 들었다 공인의 자세

"집회에서나 단체에서나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순타니파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월 10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 황 교수가 마지막까지 장담했던 '원천기술'도 "현재는 없다"는 것이 서울대 조사위가 밝힌 결론이다. 충격과 실망이 크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에 올린 두 논문을 완전한 줄기세포 없이 시험관내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논문 공저자 40명의 조작 책임과 가담 정도를 가려야 한다. 난자 채취와 사용 과정의 잘못도 밝혀야 한다.

황교수 관련 '논란'이 지난 연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이후 국내외 전반적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황교수 문제에 대해서 불교계 중진스님들도 "이번 황우석 교수 문제의 취재나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수도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즈메디에서 파견된 연구원이 서울대 연구팀을 완벽하게 속이고 실험결과를 제출했다"며 "이번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수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검찰수사가 남은 상황에서 황교수를 둘러싼 의견의 양분화는 극명해지고 있다. '황우석 사태'로 온나라가 들끓었던 50여일간 우리 국민이 최소한 얻은 것은 있다. 국민의 신망과 신뢰를 한 몸에 받은 공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다. 사회지도층일수록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진실만을 말해야 할 것이다.

■ 김주일(현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사회봉사시간, 임무 부여해야
사회봉사시간, 임무 부여해야
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현우(가톨릭대 2년)

병역거부 범죄 아닌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를 선안한지 벌써 3년이 되어간다. 대법원 임원시절 이라크전쟁반대 활동에 참여했지만 전쟁은 결국 일어나고 말았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그것을 겪어 보지 못한 내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과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임명일이 다가왔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의 선택은 '총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로 병역거부를 단순히 범죄가 아닌 종교와 평화를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역시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 면 기간과 강도에 관계없이 기쁘게 수행할 것이다.
김도형(목포 해양대 졸업)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무함,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어감을 주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다.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다. 특히 대한민국 남이라면 꼭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신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적인 업무 맡게 배려를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다. 특히 대한민국 남이라면 꼭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신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다라서 국가는 '병역'의 개념을 확대하여 그들을 '병역거부자'가 아닌 '대안적 병역희망자'로 지정하고, 예비역과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봉사시간과 임무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다만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사회적 계층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제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단된 한반도라는 상황 속에서 군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부처님 가르침 중 자비무적이라는 절대 가르침이 있듯이,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서 해결되지 않을까?

군인이라고 꼭 총을 쓰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서는 취사병, 복직회관 업무를 보는 사병 등 장병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군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같은 업무를 맡긴다면 군복무와 징총거부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훈(원주 한라대 1년)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수룩내용 ■
공화국 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오
뺨이 미쳐가고 있어오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형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집사님
입대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남자는 정력을 주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 집구일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강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명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마이산의 전설과 문화 그리고 역사
마이산 탐사 축담의 비밀과 그진상

마이산의 메아리

이 책은 저자의 수행담과 탐사와 탐구에 얽힌 전설과 역사, 축담의 비밀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마이산의 아름다움, 신비스러운 불가사의 함을 이책에 담았다. 마이산 탐군의 지킴이로서 그간 소중 전말과 분정, 소유권 등 탐사에서 그간 일어났던 무수한 법정에서의 소송을 책속에 진솔하게 담았다. 또한 저자는 마이산탐사에서 태어나 조부인 이갑룡 처사와 함께 지내며 조부가 탐을 쌓거나 수도하는 모습은 보아왔고 신비의 영산마이산에 돌담조성과정도 그림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이왕선(혜명) 지음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